

# KRE리porter 강원지회 간담회 결과

강원지역 리porter

기록자: 송 인 숙

일 시	2016년 6월 3일 ~ 4일	장 소	최고자연(강원 원주)
참 석 자	심호섭, 김남수, 황정선, 변옥철, 변해동, 염귀림, 황윤숙, 이윤희, 송인숙, 최락철, 박현근, 전병렬, 유영조(총 13명)		

## 1.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6.3.(금)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사랑방 사이트 이용방법 설명	스마트폰 활용
	15:00-18:00	최고자연 견학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빛고를 견학	
6.4(토)	20:00-23:00	지역 간담회	노동시장 변화 등
	07:00-08:00	아침식사	
	08:00-11:00	양귀비 축제	

## 2. 회의 내용

### 가. 농업·농촌 현장여론 논의

#### 1) 농촌 삶의 질의 향상 방안

- 이윤희: 농촌이 발전을 위한 방안보다 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노인정에 책정되어지는 예산은 점점 많아지고 농촌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 송인숙: 저희 아이가 작년에 농사를 짓는다고 들어왔다가 올해 나갔습니다. 취업이 되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골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 2) 농촌 지역의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 심호섭: 농촌은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고민입니다. 외국인을 고용을 하면 일 년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농촌의 일이라는 것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는 없습니다.
- 김남수: 농촌의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연수생으로 정식으로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보다 불법노동자들이 일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정식연수생으로 온 사람들은 농촌의 바쁜 현실을 이해해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일을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

니다. 불법취업자들 경우는 빨리 돈을 벌어서 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열심히 하지요.

- 박현근: 외국인을 고용을 했는데 한 달에 180만원 주고 숙식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는 일할 사람이 넘쳐나고 농촌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등을 고용을 하다 보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유영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챙겨 주어야 하는데 불법이다 보니 떠돌이가 되어 태어난 아이들이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 황윤숙: 농촌의 일도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배꽃을 쉼니다던지 이런 일은 시키지를 못합니다. 농촌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는 곳이 필요합니다.
- 심호섭: 농번기에 봉사를 나오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 현장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옥수수 대를 베거나 밭에 비닐을 걷는 등의 간단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농사도 기술인데 오히려 농촌 봉사가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남수: 지금 농촌 대부분의 인력이 외국인 용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숙박비와 식비로 하루 이만 원을 공제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심호섭: 동해에 외국인 어민숙소가 있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로 숙소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 3) 강원지역 현장여론

- 심호섭: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의 농사에 각 회원의 이야기들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제조제 피해를 보았습니다. 경농에서 생산하는 마타조점보인데 찹쌀 눈에 제조를 한 후 피해를 보아서 한 2천 평이 농사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용법 용량 다 지켜서 사용을 하였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았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농약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 황정선: 저희는 가물이 문제입니다. 현재로 보아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영구적인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영조: 영원도 가물이 심합니다. 올해의 보리 수확을 포기해야 합니다. 열매가 전혀 여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평창도 앞으로 일주일후면 고갈입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계곡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먼 곳은 중간에 펌핑을 해서 옮깁니다.
- 이윤희: 철원은 겨우내 한탄강 물을 저수지에 올려놔서 가물은 없습니다.
- 황윤숙: 관정의 보조사업을 깊이로 제한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물이 나올 때 까지 파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파다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보조비만 받고 있습니다.
- 염귀림: 물이 나와야 하는데 파도 물이 이제는 많이 안 나옵니다.
- 유영조: 이제 물이 없다 보니 대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소공이 많이 필요합니다.

○ 최락철 : 너무 가물다 보니 개구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가뭄으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 4)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 황정선: 6차산업법이 현장에 이득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식품가공위생법 제조업법 판매업법등 법으로 제약되는 부분은 많은데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해당되는 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송인숙: 강릉지술센터는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OEM방식으로 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만 가져다주면 가공을 해주는 가공공장의 운영이 있어야겠지요.
- 심호섭: 농촌의 가옥대장을 등기를 내어 주어 합법화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그냥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제약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등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 송인숙: 지인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 시골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내부 수리비로 삼천백 만원에 수리를 했는데 당장 내려올 형편이 되지 않아 집을 이전만원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임으로 나무 보일러를 놓고 관리부실로 불이 나서 전소되었는데 가옥대장 집이라서 소방서 추산 구백만원이네요. 세입자는 그 금액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대장은 무허가가 되어 아무런 대수선 등 혜택도 없다고 합니다. 가옥대장은 등기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내고 있으니까요.
- 박현근: 농자재를 사면 부가세환급을 농협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환급금에 대해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세금에 수수료를 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서 수수료 떼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 유영조: 도시농업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은 도시에서 굳이 농산물을 키워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염된 안 좋은 농산물인데 정부에서 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송인숙: 저는 도시농업은 환경보전으로 보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먹는 것보다는 공기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해동: FTA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금을 농촌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심호섭: 올해의 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 송인숙: 얼마 전에 트랙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죠. 농기계수리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요
- 박현근: 하우스 비닐 대신 솔라릭을 사용을 하는데 10년을 사용합니다.

#### 나. KRE리포터 사랑방 사이트 모바일 활용방법

- 모바일 KRE 리포터방을 각 회원의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설치를 하고 글쓰기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건의 및 공지사항

- 전병렬: 중앙회 연찬회 개최시기를 조절했으면 합니다. 꼭 가고 싶는데 모내기와 겹쳐서 못가고 있습니다. 3월쯤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 송인숙: 다음 모임은 9월 27일 ~ 28일 영월에서 개최합니다.

#### 라. 농촌마을 견학

##### 1) 최고자연 견학

- 원주시 소초면에 자리한 치악산 기슭으로 꽃창포를 습지에 심어서 자연을 보존하는 농장으로 최락철 회원님 댁이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정리하는 중으로 현재는 꽃창포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꽃창포를 이용한 창포에이드는 두 시간동안 등산한 피로를 한순간에 풀어줄 수 있는 음료였다.

##### 2) 밧고을 견학

- 이곳은 한 골짜기를 형형색색의 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세와 여러 유지비로 힘들 것 같다.

#### 3. 이모저모



#### 4. 참석자 명단(13명)

##### 강원지회 간담회 참석자 명단

2016년 6월 3일

(기나다순)

구분	대표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지역	서명
1	R132027	권순성	010-5377-9357	강원 태백	
2	R132026	김경섭	010-6374-3510	강원 횡성	
3	R102016	김남수	010-6229-7721	강원 경창	김남수
4	R142030	강동훈	010-7285-8289	강원 고성	
5	R132028	남진희	010-6215-0298	강원 정선	
6	R092011	박관환	010-6201-6296	강원 홍천	
7	R142032	박현근	010-3000-5252	강원 횡성	박현근
8	R132025	변득철	010-3077-2506	강원 춘천	변득철
9	R092010	변희동	010-8799-7501	강원 홍천	변희동
10	R112019	송민숙	010-9057-4371	강원 강릉	송민숙
11	R092002	심호섭	010-5375-3118	강원 동해	심호섭

구분	대표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지역	서명
12	R102017	영주환	010-8919-5869	강원 춘천	영주환
13	R132029	유영미	010-9420-6009	강원 원주	
14	R132023	유영조	010-5362-1395	강원 영월	유영조
15	R092008	이문희	010-4744-5741	강원 원주	이문희
16	R092004	전병열	010-6373-3154	강원 원주	전병열
17	R142033	정재갑	010-2619-3256	강원 양양	
18	R132021	최학철	010-5371-6545	강원 원주	최학철
19	R132024	최무열	010-5378-8113	강원 강릉	
20	R132022	황원숙	010-9309-2779	강원 원주	황원숙
21	R142034	황용선	010-5777-9696	강원 삼척	황용선